해외건설, 수주 200억 달러 시대 개막

열정과 뚝심과 도전…마침내 新紀元을 열다

- 42년만에200억달러수주돌파, '알토란 '같은달러박스로' 효자산업 '자리매김-

해외건설 200억 달러 시대가 개막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오후 5시를 기해 GS건설이 이집트에서 18억 6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2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 연 200억 달러 돌파는 1965년 첫 해외 진출 이후 42년 만에 거둔 쾌거이다. 더욱이 올 해외건설은 총 24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 최고치를기록할예정이다.

열대 우림과 사막에서 일군 땀의 역사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척박한황무지에 서옥토를일군피와땀의역사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자본과 기술 등의 경쟁력을바탕으로한 것이아니었다. 오로지노동력을밑천삼아불굴의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두드려 얻어낸 개가였다. 이로써 고속도로, 대규모 항만 · 댐 · 공항, 상하수도, 산업시설기초공사등대부분의 토목 공사가 해외에서 먼저 경험을 한 뒤 국내 공사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각종선진시공기술과공사관리, 계약및금융 관리 기법들이 도입되어 건설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역수출을 실현한 것이다.

그 역사는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고속도로건설공사를따내면서비롯되었다. 이공사는변변한장비한대도없이도전정신을바탕으로일궈낸쾌거였다. 파타니 나라티왓고속도로공사를 통해습득한국제 시방서에의한공사 경험 및고속도로시공 기술은이후중동건설시장진출의발판이되기도하였다.

이후 우리 건설업체들은 열대 우림과 사막, 툰드라지역, 바다 · 강 · 산악등기후와 지형 조건을 가리지 않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누볐다. 특히, 전쟁중에도현장을지켰고, 계약금액의수배에이르는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 건설 강국 Korea'의 명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전 세계에 아로새겨지기시작했다.

태국을 시작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1969년 알라스카에 진출하였고, 1971년에는 중남미지역의 도미니카로그영역을넓혔다. 다만이때까지의연간해외건설수주액은1억달러를넘지못하였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중동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삼환기업이사우디아라비아알울라 카

이바 간 164km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중동은 우리의 최대 해외 건설시장으로 떠올랐다. 1973년 불어닥친 유가폭등은 국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중동붐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간의 공사 경험과 기술 축적, 그리고 현대적 건설장비를 기반으로 중동시장 개척에 전력투구하였다. 그 결과 1981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 136억 8,000만 달러 중 93%에 해당하는 126억 7,400만 달러를 중동에서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동건설시장을 석권하기도 하였다.

중동 붐 뒤에 찾아온 위기

위기도 있었다. 1981년 한때 최고조에 달했던 해외건설 수주는 1984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해외건설 진출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주감소는 유가하락 산유국⇒석유 판매 수입 감소⇒중동 국가 SOC 건설마무리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라는 외적 요인과 함께 해외건설업체들의 기술적 한계성 및 대체 시장 발굴 미흡 등 내부 요인, 국내 건설 노임의 급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수주액이 감소함에 따라 시공 금액도 줄어들어 건설수입이 감소했으며,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장기 어음이나 산유국의 원유 판매 부진으로 공사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부실공사 등 우리 건설업체들의 귀책 사유로 공사를 수행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도산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해외시장에 서철수하기도 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념비적인 공사들

이러한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기념비적인 공사 실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건설 당시 동양 최대의 항만 공사였다. 세계 제8대 불가사의로 까지 일컬어지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 최대의 단일 공사로 알려져 있다. 다리 전체의 길이가 약 13.5km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페낭대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교량이다. 지난 1997년 완공된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88층, 452m)는 2003년 10월 대만에 세워진 대만 타이베이 금융센터에 타이틀을 넘겨주기 전까지 세계 최고층 빌딩이란 타이틀을 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싱가포르의 래플즈시티,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파키스탄의 라호르 - 이스라마르간 고속도로, 방글라데시 역사상 가장 큰 자무나교량,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주아 산악도로, 그리고 이란의 최대 국책사업인 사우스파가스 전개발공사, 멕시코 카데레이타 정유소 확장공사 등 20세기를 빛낸 프로젝트들이 우리 손으로 완공되었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접어든 21세기 초, '건설 코리아'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세워질 초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를 짓고 있다. 이 건물은 완공되면 세계 최고층 마천루로 기록된다. 버즈 두바이 건물은 완공시 지상 170층에 높이가 800m, 연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 56배 넓이인 15만평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슈아이바 담수 플랜트를 8억 5,000만 달러에 수주해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기념비적인 공사 실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의 싱가포르 선텍시티 프로젝트는 전체 공사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공사로, 총 5개 패키지 가운데 3개 패키지를 우리 업체가 시공해 뛰어난 건축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국민 경제에 기여해 온 '효자 산업'

해외건설은 수입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순수 수출 산업이다. 외화가득 및 국민 경제 기여도도 유난히 커 효자산업으로 불린다.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 달성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점이기도 하다. 더욱이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는 단순한 외화가득 이외에 연인원 300만 명의 고용 창출과 300억 달러의 국산 기자재 수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공사 발주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2의 중동 특수를 구가하고 있다. 사진은우리업체가 2001년담수화플랜트로는사상 최대인 8억 달러에 수주해 시공한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담수플랜트전경.

해외건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해외건설은 1970 80년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중요한산업으로자리매김했다. 해외건설시장진출 10년도채안된 1981년과 1982년 해외건설 수주 총액은 각각 137억달러와133억달러로미국에이어2위를 기록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213억 달러(1981년)와 219억 달러(1982년)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해외건설이 국가 경제에미친영향을가늠해볼수있다.

당시 건설 근로자들이 사막의 열기와 가족이별의고통속에서직접벌어들인오일달러는 산업 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공업체의시공관리 수익뿐만아니라 노무인건비도고스란히국내에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1982년 해외건설을 통한 외화 벌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무려 26.4%나기여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 역군들이 사막과 정글에서 피땀 흘려 지은 각종 플랜트 · 교량 · 수로 · 건물등은나라의위상과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 리비아 대수로공사는이를잘 말해준다. 리비아에서 대중적인 생수 이름은 맨 메이드 리버 Man made river.‘ 인간이 강을 만들었다 ’는의미로, 바로대수로공사로인해생겨난 브랜드이다. 대수로 공사가 아니었다면 만들어질수없는이름이다.

제2의 해외건설 르네상스를 꿈꾼다

근대적 건설 개념이 이 땅에 들어선 지 60년. 지난 40여년동안수많은대형해외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 경제에 맑은 피를 수혈해 왔던 해외건설이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꾸고있다. IMF 외환위기를맞아침체를면치못한상황에서이를극복하기위해제살을도려내는뼈아픈 구조조정과 경영 개선 노력으로 체질을 강화한 덕분이다.

지속적인시장개척노력에따른해외진출다변화노력도빼놓을수없는요인이다. 특히, 2000년대중반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주택및신도시건설경험과노하우를 바탕으로한해외개발사업이봇물을이루고있다.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의 알제리, 중앙아시아의 몽골과 카자흐스탄, 동남아의베트남등세계곳곳으로한국형 신도시가 수출되고 있다. 이른바‘ 한류 ’수출에 아파트와 도시 건설이라는 상품도 가세한 것이다.

운도따르고있다. 대외적으로국제유가 상승에따른중동산유국의플랜트공사발주가 대폭 확대돼 제2의 중동 특수를 구가하고있다. 게다가아시아지역의 부분적인 경기회복으로토목 · 건축분야를중심으로 수주경쟁력이되살아나고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움츠러들었던 해외 수주는 2004년부터 재도약하였다. 2005년수주규모는해외건설역사상여섯번째로 100억달러를넘어 108억 5,900만달러를기록했고, 지난해에는사상 최고치인164억 6,8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올렸다. 올해역시200억달러를훌쩍넘길전망이다. 가히무서운상승세라아니할 수없다.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해야

그러나, 지금잘나간다고해서그호황이 계속이어질것이라판단해서는안된다. 우리는이미중동붐이가라앉은이후발주물량감소와건설노임상승등으로1988년 16억달러까지급감했던경험이있지않은가?

그런 만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을 무기로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했지만 이제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건설기술없이 일감을따내기가어려워졌다.

따라서, 건술기술분야에대한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가시급하다. 정부의역할또한중요하다. 모처럼탄력을받고있는해외건설 수주 상승세를 유지하고 세계 시장에서건설한국의경쟁력을더욱 높이기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수주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러한노력들이더해질때해외건설업은 밀레니엄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들을 세계 곳곳에 세울 수있게될것이다.

이형우
기자
hwlee@cerik.re.kr